



대학은 발전하고 있는가

김 학 수 |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원장

서양에서 대학의 발전을 이야기할 때 소위 2G를 언급하기도 한다.

그것은 Glow와 Grow의 동일시 경향을 일컫는 말이다. 전자의 “빛나다”의 의미와 후자의 “성장하다”의 의미를 함께 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총장은 모든 노력을 다해서 대학 발전기금을 끌어오고, 거대 발전기금을 기부하는 후원기관이나 사람은 대부분 영구적이고 좀 더 빛이 나 보이는 건물 헌납에 바치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훌륭한 업적을 남긴 총장일수록 캠퍼스 안에 눈부시게 빛나는 건물들을 신축하게 된다. 그리고 이 빛나는 신축 건물들을 본 사람들은 또한 그 대학이 크게 성장했다고 생각하게 된다.

아마도 최근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빛나는 신축 캠퍼스 건물들을 세운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닌가 생각된다. 전국의 어느 대학 캠퍼스를 가보아도 한쪽에는 금방 세운 건물들이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있는데, 그 옆에는 다시 거대한 신축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형상이다.

심지어 무절제하게 우후죽순처럼 건물들을 짓다 보니 캠퍼스 자체가 난개발(亂開發)의 전형을 보이는 경우도 많다. 학풍(學風)이나 전체 조경(造景)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런 난개발은 소위 명문대학일수록 그 정도가 심하다. 결국 어지럽고 이지러진 빛남은 마찬가지로 이지러진 성장을 예고하는 것 같기도 하다.

새것은 언제나 헌것을 밀어내지만, 그러나 그 둘이 공존할 때 안정, 균형, 진정한 의미의 발전을 생산하는 것은 만고의 진리이다.

우리의 눈과 심성(心性)은 새 것을 보거나 경험하면 언제나 떨림과 불안정을 맛보게 된다. 그런 불안정을 상쇄시키는 것은 늘 보아왔던 것, 익숙한 것, 즉 전통적인 것들이다. 그래서 헌 것을 보거나 경험하면 금방 가라앉음과 안정을 맛보게 되는 법이다. 이런 헌 것과 새 것의 어울림이 바로 전통과 진보의 조화이고, 그런 균형이 존재할 때 서로 모순인 것처럼 들리는 ‘안정 속 변화’, 곧 진정한 의미의 발전이 가능해지는 법이다. 그런 면에서 오늘의 한국 대학 캠퍼스는 온통 새것, 변화, 떨림, 불안정만 팽배되어 있지 않나 싶다.

필자는 5년 전에 서울에서 커뮤니케이션학 세계총회(ICA)를 주관하여 치른 적이 있다.

당시, 민간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서울시의 허가를 받고 시(市) 로고를 공식 대회마크의 일부로



사용한 적이 있다. 외국인 참가자들 대부분은 서울을 처음 방문했었다. 그들은 숙소(남산의 힐튼 호텔)에서 걸어 나와 남대문시장, 백화점, 시청, 삼성본관, 덕수궁, 광화문, 경복궁, 인사동 등을 돌아본 뒤, 전 세계 대도시 가운데 이렇게 최첨단 현대와 전통적 고대가 공존하는 대도시를 본 적이 없다고 찬사를 퍼부었다. 이것은 내가 서울에 살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중대 발견이었다. 그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대도시는 전통적 구(舊)시가지와 신(新)시가지지를 확연히 구분하고 있는데, 서울의 도심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조화와 균형을 맞출 수 있었고, 그런 만큼 도시 자체가 위협적이지 않았고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친근감을 주었다고 했다.

지금 대학에는 비단 건물뿐만 아니라 많은 제도들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대학교수직도 더 이상 철밥통이 아닌 것으로 바뀌고 있다. 날카로운 경쟁체제가 도입되고, 연구업적뿐만 아니라 유교적 전통 속에서 신성시되던 교육활동도 소비자인 학생들로부터 날카롭게 평가받고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대학경쟁력을 세계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입해야 할 것들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 제도 개혁들도 한꺼번에, 그리고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물밀듯이 일어나고 있다.

교육 소비자인 학생들의 능력이나 목표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모든 대학이 연구중심 대학을 지향하고 있고, 한두 대학을 벤치마킹하여 일제히, 그리고 일거에 제도들을 거의 동일하게 정비하고 있다. 이런 제도 개혁 또한 헌것을 버리고 새것을 도입하는 것에 해당된다. 따라서 앞에서 말한 신축 건물의 범람 같은 것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만큼 대학 조직에도 떨림과 불안정을 가져오는 이치는 마찬가지다. 이런 조직의 과도한 불안정은 필연적으로 대학교수, 직원 및 학생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안정 속 변화'라는 진정한 의미의 발전을 가져오는 데 상당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2G(Glow/Grow)의 착란(錯亂), 한국의 대학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모색할 때가 되었다. 그래야만 경쟁력을 갖춘 대학의 발전이 진실로 가능해지지 않겠나 여겨진다. **대학**

김학수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학장 겸 언론대학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언론의 이해』, 『과학커뮤니케이션론』 등이 있다.